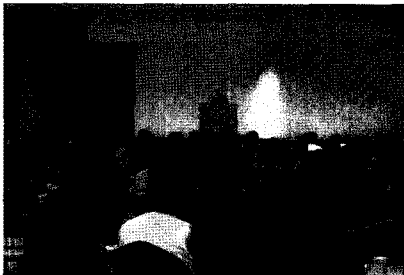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이동익 신부)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한국가톨릭의료의 역사 및 사회공헌활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전국의 회원병원 임원 및 직원, 가톨릭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간부 및 교구별 회장, 유관기관 임원 등 총 237명이 참석하였으며, 임시총회에서는 전임 최영식 신부에 이어 이동익 신부의 회장 승계를 확인하였고, 정관에 해외의료봉사와 북한의료지원에 관한 목적 사업은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원목분과위원회, 가정간호분과위원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이번 정기세미나 기간 동안 강의실 앞 로비에 20곳의 회원병원들의 사회공헌활동 홍보물(사진 120×100cm)이 전시되었으며 1등 성가복지병원, 2등 요셉의원, 3등 갈바리의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이 공동 수상했다.

**의료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 지원**  
회원병원의 의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의료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하고 유지하여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협회에서는 국내 의료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병원의 의료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신입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월교육, 호시피스교육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까지 12개 회원병원, 16개 교육 프로그램, 참석 인원 1,386명에 대해 지원하였다.

### 제22차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력협정 운영위원회 개최



제22차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력협정 운영위원회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1988년 일본 성마리아병원과의 한·일가톨릭 의료기술교류협정 이후 해마다 이어져온 한·일가톨릭의료기술교류위원회는 상호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협의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연수생을 파견 교육함으로써 의료기술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 제24차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세계대회 참석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4차 세계대회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회 안

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Vatican City New Synod Hall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가톨릭농아선교회의 박민서 지도신부와 조한일 수녀, 2명이 참석했다. 신학적, 의료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과학적 부분의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된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는 매년 11월 중순 로마 바티칸 시노드홀에서 열리며 세계 6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2008년 제23차 세계대회부터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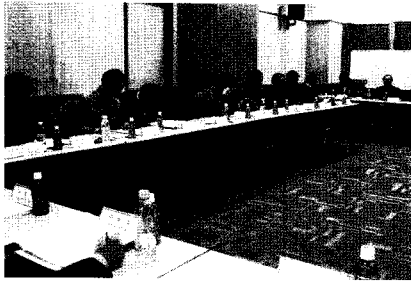
### 일본 가톨릭계 병원 견학과 성지순례



한국가톨릭병원협회(회장 이동익 신부)에서는 가톨릭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가톨릭계 병원 견학을 통해 회원병원들의 이념경영과 환자 서비스 관리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목적으로 10월 12일부터 18일(6박7일)까지 12명이 후쿠오카 지역의 구루메 성마리아병원, 고토 성마리아병원, 나가사키 성프란치스코병원, 동경 성모병원, 성마리아나 의과대학병원의 견학과 나가사키, 구루메 지역의 성지순례가 이루어졌다.

## 임시총회 개최

모현센터의원 36번째, 전·진·상의원 37번째 회원기관으로 승인·가입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임시총회가 10월 30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되어 이학노 몬시뇰(인천성모병원장)과 장중태 수녀(대구파티마병원장)가 감사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모현센터의원을 36번째, 전(全)·진(眞)·상(常)의원을 37번째의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원기관으로 승인·가입하게 되었다.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 불법 낙태근절 성명서 지지 선언

지난 10월 19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불법 낙태근절 관련 성명에 호응하여 11월 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장단(박장상, 강준기, 조건현, 고영초, 정은선)이 회합을 가졌고, 이때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진오비)의 결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작성하였다.(표2 참조) 이 성명은 현재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피정 실시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고영초 교수)가 1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성북동 상지 피정의집에서 서울대교구 각 병원 천주교 신우회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개최했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 30주년 맞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생명고 축복의 돌봄 30년”이라는 주제로 8월 2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층 홀에서 개최하였다.

기념미사는 전국 가톨릭간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교회의의 보건사목담당 김윤희(서울대교구 보좌) 주교와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최영식 신부(협회 지도신부), 대구교구 손기철 신부, 대전교구 신인수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되었으며, 신림4동 본당 이승주 신부의 기념특강이 진행됐다. 기념식은 김윤희 주교, 최영식 신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원희 대한기독교간호사회회장, 이강추 한국가톨릭약사회장, 김혜자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교구 이경희 크리스티나, 대전교구 이인우 아녜스, 인천교구 주성자 안젤라 간호사가 모범 가톨릭간호사상을 수상했으며, 대전교구와 수원교구가 우수교구상을 받았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난 3월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을 둘러본 뒤 각 교구별로 마련한 특기공연과 특별공연을 선보이며 30주년을 자축했다.

김남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30년간 전국 14개 교구의 약 2,5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의료 공동체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발전사 사진전이 함께 열렸으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30년사 책도 발간됐다.

### 용인 성직자 묘소 참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30주년 기념행사의 마무리로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11월 21일(토), 회원 40여명이 용인 성직자 묘소를 참배하였다. 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에 숨은 공로자이셨던 고 방용자 테레사 수녀와 초대 회장인 고 이춘원 놀벨파 수녀, 그리고 창립을 지시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잠들어 계신 용인 성직자 묘소를 참배하였으며, 김창훈 신부의 집전으로 추모미사를 봉헌하였다. 이 행사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후원했다.